

결혼이민자 · 귀화자의 한국어 능력이 사회참여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배우자 지지의 조절효과 분석

조몬티타 · 박시균*
(군산대학교)

1. 서론
2. 이론적 배경
 - 2.1. 사회자본 이론과 사회참여의 관계
 - 2.2. 한국어 능력과 사회참여
 - 2.3. 배우자 지지와 사회참여
 - 2.4. 한국어 능력과 배우자 지지의 상호작용(조절효과)
3. 연구 방법 및 내용
 - 3.1.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 3.2. 연구 모형
 - 3.3. 변수의 측정
 - 3.4. 분석 방법
4. 연구 결과
 - 4.1. 사회인구학적 특성
 - 4.2. 주요 변수의 특징
5. 결론 및 제언

* 제1저자: 조몬티타, 교신저자: 박시균

Ⅰ 국문초록

본 연구는 한국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와 귀화자의 사회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한국어 능력과 배우자 지지 간 상호작용을 검증하여 조절효과 여부를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여성가족부와 통계청이 공동 수행한 『2021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총 15,534명의 결혼이민자·귀화자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SPSS Statistics 25.0을 활용해 기술 통계, 상관관계 분석,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어 능력과 배우자 지지는 사회참여에 각각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으나, 두 변수의 상호작용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두 변수가 독립적으로 사회참여에 기여함을 의미하며, 생활 한국어 중심 교육과 배우자 참여형 가족지원 정책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주제어] 결혼이민자·귀화자, 한국어 능력, 사회참여, 배우자 지지, 조절효과

1. 서론

한국 사회는 급속한 저출산과 고령화 속에서 이주민의 증가라는 인구학적 변화를 겪고 있다. 특히 결혼이민자와 귀화자를 포함한 다문화 인구의 증가는 한국 사회의 다문화화를 가속화하고 있으며, 이들의 사회참여 수준은 지역사회 정착과 사회통합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지표로 평가된다(김이선·이삼식 2010; 여성가족부¹⁾ 2021). 결혼이민자와 귀화자는 가정 내에서 배우자이자 부모로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지만, 언어적 제약, 문화적 차이, 사회적 편견, 자녀 양육 부담 등 복합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사회적 고립과 낮은 사회참여를 경험하고 있다. 결혼이민자와 귀화자의 사회참여는 개인의 적응 수준을 넘어 사회 전체의 통합과 밀접하게 연관되며, 이들의 참여 수준은 다문화사회의 통합 지표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최은영 2011; 장혜경 2015). 그러나 한국어 능력 부족,

1) 여성가족부는 2025년 10월 1일부터 '성평등가족부'로 명칭을 변경하였다(성평등가족부 공식 보도자료, 2025-09-29).

제한된 사회적 관계, 낮은 지역사회 인식 등은 정착 초기의 적응을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이는 가족 갈등이나 지역사회 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한다(김이선 외 2010). 한국어 능력은 사회참여의 기초적 토대로 작용하고, 배우자의 정서적 지지는 사회활동에 대한 동기와 자신감을 높이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한국어 능력과 배우자 지지가 사회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일은 다문화가정의 안정적 정착과 사회통합 정책 수립에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결혼이민자의 사회적응이 언어능력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망, 사회참여 경험, 가족관계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하였다(서정원 2018). 가족 지지는 문화적 적응에, 사회적 지원은 사회통합에 강한 영향을 미치며, 한국어 능력과 교육 수준은 문화적 적응을 매개로 간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도 제시되었다(박철민 2012). 또한 한국어 능력은 공동체 의식과 사회참여를 향상시키는 핵심 요인으로 확인되었다(양순미 2014b).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닌다. 첫째, 한국어 능력을 자기평가에 의존하여 객관적 지표를 활용하지 못하였다. 둘째, 배우자 지지를 독립변수로만 다루어 한국어 능력과의 상호작용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한계로 인해 한국어 능력과 배우자 지지가 사회참여에 미치는 상호작용 효과를 통합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한편 본 연구는 『2021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다만 연구 완료 시점 기준 『2024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원자료 아직 공개되지 않아 동일한 방식의 통계 분석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평등가족부가 발표한 2024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의 공표된 집계 통계를 참고하여 주요 지표의 경향을 2021년 조사 결과와 비교하였다. 그 결과 결혼이민자의 한국어 능력과 사회참여 수준 관련 지표는 전반적으로 큰 변화 없이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결혼이민자·귀화자의 사회참여를 설명하는 주요 요인으로서 한국어 능력과 배우자 지지의 역할을 분석하고, 이 두 변수 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

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연구문제 1. 한국어 능력이 결혼이민자 · 귀화자의 사회참여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배우자 지지가 결혼이민자 · 귀화자의 사회참여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3. 한국어 능력과 배우자 지지의 상호작용이 결혼이민자 · 귀화자의 사회참여에 미치는 조절효과는 존재하는가?

2. 이론적 배경

본 연구는 결혼이민자와 귀화자의 사회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고, 특히 한국어 능력과 배우자 지지가 사회참여와 어떠한 관련성을 지니는지를 이론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두 요인의 상호작용을 조절효과 관점에서 규명함으로써 연구의 분석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2.1. 사회자본 이론과 사회참여의 관계

사회자본(social capital)은 개인이 사회적 관계망을 통해 획득하는 자원과 신뢰, 규범, 네트워크 등을 통해 다양한 자원을 획득하고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자원을 의미한다.²⁾ Bourdieu(1986)는 사회자본을 제도

2) Bourdieu(1986: 248)는 사회자본을 상호 면식을 가진 제도화된 관계의 네트워크와 연결된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자원의 총합으로 정의하였다. Baker(1990)는 사회자본을 특정한 사회 구조에서 행위자들이 자신의 이해관계를 실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자원이라고 하였다. Burt(1992: 9)는 사회자본을 기회를 제공하는 친구, 동료 및 일반적 접촉을 통하여 기회를 획득하고 이를 재정 및 인적자본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하였고, Coleman(1988)은 이를 의무, 기대와 신용, 정보통로, 규범과 효과적인 제재로 설명하였다. Putnam(1995: 67)은 사회자본을 상호 혜택을 위한 조정을 촉진하는 네트워크, 규범, 사회적 신뢰와 같은 사회조직의 특성이라고 규정하였다. 사회자본은 학문적 접근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된다. 결혼이민자와 귀화자의 한국어 능력은 이러한 사회자본의 형성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언어자본(linguistic capital)으로, 지역사회 내 신뢰 구축 · 관계 형성 · 사회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기반으로 작용한다.

화된 관계망을 통해 형성되는 실제적 · 잠재적 자원의 총합으로 정의하였으며, Coleman(1988), Putnam(1995)은 신뢰와 규범,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해 형성되는 사회적 자원으로 설명하였다. 이러한 사회자본은 공동체 구성원 간의 협력과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사회통합과 사회참여를 활성화하는 중요한 기반으로 이해된다.

특히 결혼이민자와 귀화자의 경우 한국어 능력은 사회적 관계 형성과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자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언어능력은 지역사회 구성원과의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고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촉진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언어자본(linguistic capital)’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이는 사회자본 형성과 사회참여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편 사회참여(social participation)는 개인이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고 공동체 활용에 참여하는 과정으로 정의된다.³⁾ 이러한 사회참여는 지역사회 구성원 간의 관계 형성과 사회적 역할 수행을 통해 사회통합을 촉진하는 중요한 사회적 활동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논의를 종합하면 한국어 능력은 결혼이민자와 귀화자가 지역사회 구성원과 상호작용과 사회적 역할 수행을 통해 사회통합을 촉진하는 중요한 사회적 활동으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결혼이민자와 귀화자의 경우 한국어 능력은 지역사회 구성과 의사소통을 하고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이는 사회참여 확대와 사회통합 과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한국어 능력과 배우자 지지가 결혼이민자와 귀화자의 사회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배우자 지지가 한국어 능력과 사회참여 간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가지는지 여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3) Cunningham(1972)은 참여를 보통 사람들이 지역사회의 공공 문제에 관한 결정 과정에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았으며, Scaff(1975)는 참여의 사회적 · 정치적 기능을, Churchman(1987)은 공동의 목적 달성을 위한 영향력 행사 과정으로 보았다. Palmore(1979; 1981)는 사회참여를 개인이 생애 전반에 걸쳐 가족 외 관계망을 확장하고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WHO(2001; 2014)는 사회참여를 활동(activity)과 구별되는 ‘생활 상황에 대한 참여’, 즉 사회적 관계와 실제 경험의 실천으로 규정하였다(오봉설 · 최상연 2022 재인용).

2.2. 한국어 능력과 사회참여

결혼이민자와 귀화자의 사회참여를 설명하는 요인 중 한국어 능력은 핵심적인 변인으로 꾸준히 주목받아 왔다. 한국어 능력은 단순한 언어 소통의 수단을 넘어,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관계 형성, 정보 접근, 경제활동 참여, 공동체 의식 형성 등 사회적 통합 과정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한국어 능력이 높을수록 사회적 관계망이 확대되고, 타인과의 신뢰 구축 및 지역사회 참여 수준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전양 외 2021; 김선숙 외 2020). 또한, 다문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한국어 능력이 사회참여와 사회통합 과정에서 핵심적 매개 요인으로 작용함이 확인되었다(양순미 2014a).

이러한 연구들은 언어능력이 사회참여의 기초적 조건이자, 사회자본(social capital)의 형성과정에서 중요한 매개적 자원임을 보여준다. 즉, 한국어 능력은 개인이 지역사회 내 관계망에 접근하고, 공동체 내 역할을 수행하며, 다양한 사회적 자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 된다. 이는 결혼이민자와 귀화자가 지역사회에서 신뢰와 상호협력력을 구축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그러나 일부 연구에서는 한국어 능력이 높을수록 사회적 차별이나 문화적 갈등을 인식할 가능성이 증가한다는 점을 지적한다(황민철 2016; 유승희 2023). 이는 언어능력이 단순히 개인의 역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구조와 제도적 맥락 속에서 다층적으로 작동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한국어 능력과 사회참여 간의 관계를 보다 정밀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자기평가에만 의존한 기존 연구의 한계를 넘어 객관적 지표를 활용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공인된 언어능력 평가 지표인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과 자기평가(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를 병행하여, 결혼이민자와 귀화자의 실제 한국어 능력과 사회참여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국어 능력이 사회참여를 촉진하는 사회통합의 핵심 매개 요인으로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는데 연구의 초점을 둔다.

2.3. 배우자 지지와 사회참여

배우자 지지는 결혼이민자와 귀화자의 사회적응과 사회참여를 촉진하는 핵심적인 사회적 자본으로 기능한다. 선행연구에서도 배우자의 지지는 결혼이민자의 사회활동 참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이현정 2017), 사회적응 과정에서 정서적 안정과 실질적 도움을 제공하는 주요 지지망이라는 점이 확인된 바 있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2). 또한, 배우자 및 가족의 지지는 사회자본의 한 형태로서 사회통합 수준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동한다는 연구 결과 역시 제시되었다(황인옥 2016). 이러한 논의들은 배우자 지지가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고립을 완화하고, 공적 영역으로의 참여를 촉진하는 핵심 요인임을 보여준다. 특히 배우자의 정서적 격려, 정보 제공, 사회활동 참여에 대한 실질적 지지는 결혼이민자가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자신감을 형성하고 사회적 관계망을 확장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된다. 즉, 배우자 지지는 결혼이민자의 사회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심리적·사회적 매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의 상당수는 배우자 지지의 효과를 주로 독립적 변수로만 다루어, 다른 요인과의 상호작용적 관계를 충분히 검증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지닌다. 특히 한국어 능력과 사회참여 간의 관계에서 배우자 지지가 조절변수로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는지에 대한 실증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이는 배우자 지지가 단순히 사회참여를 촉진하는 직접적 요인에 그치지 않고, 언어능력의 효과를 강화하거나 약화시키는 맥락적 조건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간과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배우자 지지를 결혼이민자·귀화자의 사회참여를 설명하는 핵심 요인으로 재조명하고, 특히 한국어 능력과 배우자 지지 간의 상호작용(조절효과)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배우자 지지가 결혼이민자의 사회참여를 조절하는 구체적 메커니즘을 규명함으로써 기존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고, 보다 통합적인 분석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나아가 본 연구는 실천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 결혼이민자의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언어교육 지원뿐 아니라 배우자 및 가족 차원의 정서적·사회적 지지체계를 강화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즉,

한국어 능력 향상과 배우자 지지의 결합이 사회참여를 극대화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줌으로써, 향후 언어교육 정책과 가족지원 정책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2.4. 한국어 능력과 배우자 지지의 상호작용(조절효과)

기존 연구들은 결혼이민자와 귀화자의 사회참여를 설명함에 있어 한국어 능력과 배우자 지지를 각각 독립적인 변수로 다루는 경향이 강했으나, 두 요인 간의 상호작용적 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조절효과 이론에 따르면, 한 요인의 효과는 제3의 요인에 의해 강화되거나 약화될 수 있으며(Baron & Kenny 1986; Aiken & West 1991), 이를 본 연구의 맥락에 적용하면 결혼이민자의 한국어 능력이 사회참여에 미치는 영향은 배우자 지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즉, 배우자 지지가 높은 경우에는 한국어 능력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그 부정적 영향이 완화될 수 있으며, 반대로 배우자 지지가 낮은 경우에는 한국어 능력이 충분히 높더라도 사회참여나 지역사회 적응의 효과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김순규(2010)의 연구에서도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지지와 한국어 능력이 사회생활 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두 요인이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배우자 지지는 단순한 독립변수에 그치지 않고, 한국어 능력이 사회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맥락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배우자의 정서적 격려, 정보 제공, 사회활동 참여 권장 등은 결혼이민자의 언어적 한계를 보완하여 지역사회 내 관계 형성, 신뢰 구축, 사회적 포용의 기회를 확대하는 긍정적 매개로 기능한다. 따라서 배우자 지지 수준이 높을수록 한국어 능력이 사회참여로 전환되는 효과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2021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여성가족부 2021)의 원자료를 활용하여 배우자 지지를 (다문화가족·고용)센터 프로그램 참여 격려, 한국인과 어울림 지지, 모국인 모임 참여 지지, 구직 및 근로활동 지지 등 4개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결혼이민자와 귀화자의 사회참여 과정에서 배우자 지지가 한국어 능력의 효과를 어떻게 조절하는지를 조절효과 모형(moderation model)을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이를 통해 한국어 능력과 배우자 지지가 결합하여 사회참여를 촉진하거나 제한하는 구체적 메커니즘을 규명하고, 기존의 단편적 접근을 넘어 보다 통합적 분석틀을 제시한다. 아울러 이러한 결과는 언어교육과 가족지원 정책의 연계 필요성을 뒷받침하며, 결혼이민자와 귀화자의 사회통합을 위한 실천적 기초자료로서의 의의를 지닌다.

3. 연구 방법 및 내용

3.1.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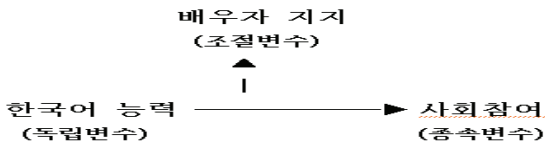
본 연구는 결혼이민자와 귀화자의 한국어 능력과 사회참여 간의 관계, 그리고 그 관계에서 배우자 지지가 가지는 조절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와 통계청이 공동으로 수행한 『2021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의 원자료를 활용하였다. 이 조사는 전국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와 귀화자를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언어능력, 사회참여, 가족관계, 생활환경 등 다양한 측면에 대한 정량적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중 한국어 능력, 사회참여, 배우자 지지 관련 변수에 누락 없이 응답한 15,534명의 자료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해당 실태조사는 국가 단위 표본설계 및 체계적인 조사 도구, 엄격한 품질관리 기준에 기반하여 이루어져, 결혼이민자와 귀화자의 사회통합 요인을 분석하는 데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2차 자료로 적합하다. 실제로 『2021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는 결혼이민자와 귀화자 가족의 전반적인 생활실태, 교육, 고용, 차별 경험, 가족관계, 주거 및 사회참여 등의 현황을 다각도로 파악하여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여성가족부 2021). 따라서 본 연구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어 능력, 사회참여 수준, 배우자 지지 정도 간 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함으로써, 결혼이민자와 귀화자의 안정

적 정착과 능동적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정책적 근거를 제공하고자 한다.

3.2. 연구 모형

본 연구는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결혼이민자와 귀화자의 사회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한국어 능력과 배우자 지지를 설정하였다. 한국어 능력은 독립변수, 사회참여는 종속변수로 설정하였으며, 배우자 지지는 한국어 능력과 사회참여 간의 관계에서 조절변수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변수 간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의 분석모형을 <그림 1>과 같이 제시하였다.



<그림 9> 연구 모형

3.3. 변수의 측정

3.3.1. 독립변수: 한국어 능력 수준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한국어 능력이다. 한국어 능력은 개인이 인지하는 주관적 언어능력과 객관적 언어 숙달 수준을 함께 고려하여 측정하였다. 주관적 한국어 능력은 말하기·듣기·읽기·쓰기의 네 영역에 대해 ‘귀하의 한국어 실력은 어느 정도입니까?’라는 질문에 5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한 점수를 활용하였다(1점=전혀 못한다~5점=매우 잘한다). 각 항목 점수는 역코딩 후 평균값을 산출하여 주관적 한국어 능력의 종합 지표로 구성하였다. 객관적 언어능력은 한국어능력시험(TOPIK) 최종 취득 등급(1~6급 또는 등급 없음)을 기준으로 객관적 숙달 수준을 보완적으로 평가하였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자기평가 방식의 주관적 한국어 능력과 공

인된 평가 지표인 TOPIK 등급을 함께 고려하여 한국어 능력을 보다 종합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주관적 평가는 실제 일상생활에서의 언어 사용 경험과 개인이 인식하는 의사소통 능력을 반영한다는 장점이 있으며, TOPIK 등급은 객관적 기준에 따른 언어 숙달 수준을 나타내주는 점에서 서로 다른 측면의 언어능력을 보여준다. 또한 이러한 변수들은 SPSS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정리 및 분석에 활용하였으며, 말하기·듣기·읽기·쓰기 영역의 자기평가 점수는 평균값을 산출하여 주관적 한국어 능력 지표로 구성하고 TOPIK 등급은 객관적 언어 숙달 수준을 확인하기 위한 보조 지표로 활용하였다. 이를 통해 결혼이민자와 귀화자의 한국어 능력을 보다 다차원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3.3.2. 종속변수: 사회참여 수준

종속변수는 사회참여 수준이다. 2021년 전국다문화 실태조사 설문조사에 ‘지난 1년(2021. 8. 2.~2021. 9. 10.) 40일간 동안 학부모 모임, 모국인 친구 모임, 지역주민 모임, 종교활동, 민간단체 활동, 정치활동 및 노동조합’ 등 6가지 영역의 사회참여 경험이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본 연구는 결혼이민자와 귀화자의 사회참여 유형을 규명하기 위해 국내의 선행연구를 참고하였다. 국내에서는 민무숙 외(2013) 및 김이선 외(2020)의 연구를 통해 사회참여의 유형화 접근 검토하였고, 해외 연구로는 Berry(1997)의 문화적 적응 이론과 Putnam(2007)의 사회적 자본 이론을 근거로 삼았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민자와 귀화자의 사회참여를 사회적 관계망의 특성에 따라 소외형(1), 분절형(2), 동화형(3), 균형형(4)의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유전양·우평슈예·장이츠 2021).⁴⁾

4) 사회참여 유형의 구체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외형은 주변의 한국인이나 모국인과 함께하는 사회적 활동에 모두 참여하지 않는 유형으로, 사회적 관계망이 거의 형성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한다. 둘째, 분절형은 한국인과의 사회적 활동에는 참여하지 않으나, 모국인 친구들과의 모임 활동에는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유형이다. 셋째, 동화형은 모국인 친구 모임에는 참여하지 않고, 한국인과 함께하는 사회적 활동에만 참여하는 유형을 말한다. 넷째, 균형형은 한국인이 참여하는 활동과 모국인 친구 모임 모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유형으로, 두 사회 간의 관계망을 균형 있게 유지하는 형태이다.

3.3.3. 조절변수: 배우자 지지 수준

조절변수는 배우자 지지 수준이다. 배우자 지지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고용센터 프로그램 참여 격려, 한국인과 어울림 지지, 모국인 모임참여 지지, 구직 및 근로활동 지지 등 네 영역을 대상으로 ‘배우자의 한국 생활을 얼마나 지원하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5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한 점수를 활용하였다(1점=전혀 그렇지 않다~5점=매우 그렇다). 각 점수는 역코딩 후 평균값을 산출하여 종합 지표로 구성하였다. 이러한 배우자의 지지 수준은 한국어 능력과 사회참여 수준 간의 관계를 강화하거나 약화시키는 조절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서 제공하는 배우자 지지 관련 문항을 중심으로 변수를 구성하였다는 점에서 배우자 지지의 다양한 차원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서비스 요구, 사회적 인식, 지역사회 지원 등 보다 다양한 요인을 함께 고려한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3.3.4. 통제변수: 사회인구학적 특성

통제변수는 사회인구학적 특성이다. 성별, 연령, 교육 수준, 국적, 거주 기간, 거주 지역, 동거 여부, 소득 수준 등 개인의 배경 요인을 포함한다. 이러한 변수들은 사회참여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생적 요인으로 간주되므로, 분석 과정에서 통계적으로 통제함으로써 한국어 능력이 사회참여 수준에 미치는 독립적 효과를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고자 하였다.

3.4.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Statistics 25.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졌다. 먼저, 연구 대상자의 성별, 연령, 교육 수준, 국적, 거주 기간, 거주 지역, 동거 여부, 소득 수준 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표본의 일반

적 분포를 확인하고, 이후 변수 간 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다.

다음으로, 주요 변수의 한국어 능력, 사회참여 수준, 배우자 지지 정도의 전반적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기술통계분석(Descriptive Statistics)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각 변수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등을 산출하여 변수들의 분포와 특성을 확인하였다. 세 번째로, 한국어 능력, 사회참여 수준, 배우자 지지 간의 관련성을 검토하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피어슨 상관계수(Pearson's r)를 통해 각 변수 간의 상호 관련성의 정도와 방향을 파악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다중공선성 문제를 점검하여 회귀분석의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국어 능력이 사회참여에 미치는 영향과 그 관계에서 배우자 지지의 조절효과(Moderating effect)를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 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1단계에서는 연령, 학력, 거주 기간 등 사회인구학적 요인을 투입하여 통제변수의 영향을 확인하였으며, 2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한국어 능력을 추가하여 사회참여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을 분석하였다. 3단계에서는 조절변수인 배우자 지지와 한국어 능력의 상호작용(한국어 능력 \times 배우자 지지)을 투입하여 조절효과의 존재 여부를 검증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 절차를 통해 본 연구는 결혼이민자와 귀화자의 한국어 능력과 사회참여 간 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고, 배우자 지지가 그 관계에 어떠한 조절적 역할을 수행하는지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4. 연구 결과

4.1. 사회인구학적 특성(N=15,534)

본 연구의 통제변수로 활용된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표 1〉 사회인구학적 특성

변수	항목	빈도 (N)	백분율 (%)	변수	항목	빈도 (N)	백분율 (%)
성별	여자	13,312	85.7	국적	외국	7,365	47.4
	남자	2,222	14.3		대한민국	8,169	52.6
연령	30대 미만	1,970	12.7	거주 기간	5년미만	1,657	10.7
	30대	6,141	39.5		5년~10년미만	3,176	20.4
	40대	4,087	26.3		10년~15년미만	4,479	28.8
	50대	2,181	14.0		15년이상	6,222	40.1
	60대 이상	1,155	7.4	거주 지역	도시	9,849	63.4
교육 수준	초졸이하	13,854	89.2	동거 여부	농촌	5,685	36.6
	초졸	90	0.6		비동거	2,571	16.6
	중졸	144	0.9	소득 수준	동거	12,963	83.4
	고졸	370	2.4		소득기준미만	6,874	44.3
	대졸	800	5.1		소득기준	7,627	49.1
	대졸이상	276	1.8		소득기준이상	1,033	6.6

본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총 15,534명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성별 구성은 여성 비율이 85.7%(13,312명)로 압도적으로 높아, 표본이 주로 여성 결혼이민자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연령별 분포에서는 30대가 39.5%(6,141명)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이는 사회활동, 자녀 양육, 경제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연령층이 주요 조사대상임을 시사한다. 교육 수준의 경우 초등학교 졸업 이하가 89.2%(13,854명)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낮은 학력 수준이 특징적이다. 이는 한국어 학습과 사회적 적응 과정에서 교육 배경의 영향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교육 수준에서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은 결혼이민자와 귀화자가 다양한 출신 국가와 교육 환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일부 국가의 학력 체계는 한국의 학력 분류 기준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조사 과정에서 학력 미응답이나 학력 분류 기준의 차이 등이 ‘초졸 이하’ 범주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점은 다

문화가족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한 연구에서 나타나는 특성 중 하나로 이해할 수 있다. 출신 국가를 기준으로 보면 대한민국 국적 취득자가 52.6%(8,169명)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여, 조사대상자의 상당수가 이미 귀화하여 장기 정착 단계에 진입한 상태임을 보여준다. 국내 거주기간은 15년 이상이 40.1%(6,222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는 본 연구가 초기 적응 단계보다는 장기 정주 단계에서의 사회참여 및 통합 특성을 분석하는 데 적합한 표본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거주 지역은 도시 거주가 63.4%(9,849명)로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이는 교육·복지·문화 서비스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환경에서 사회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배우자와의 동거 여부에서는 동거가 83.4%(12,963명)로 나타나, 가족 상호작용 및 배우자 지지가 연구 변수로 기능할 수 있는 구조적 기반이 충분함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소득 수준은 중간 수준이 49.1%(7,627명)로 나타나, 경제적 조건이 매우 낮거나 매우 높게 치우치지 않은 비교적 중간 분포의 표본이라는 점에서 사회경제적 변인의 균형이 확보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의 표본은 여성, 30대, 낮은 학력, 장기거주, 도시 거주, 배우자 동거 비율이 높은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한국어 능력, 배우자 지지, 사회참여 간 관계를 분석하는 데 필요한 인구학적·사회적 조건을 충분히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

4.2. 주요 변수의 특징

4.2.1. 기술통계 분석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능력 수준(독립변수), 사회참여 수준(종속변수), 배우자 지지(조절변수)를 대상으로 기술통계를 살펴보았다.

〈표 2〉 기술통계 분석 결과

변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종속변수	사회참여 수준	0	6.00	0.9741	1.02892
독립변수	한국어 능력 수준	0	6.00	2.8541	1.18136
조절변수	배우자 지지 수준	0	5.00	3.0825	1.52444

먼저, 사회참여 수준의 평균은 0.9741(SD=1.02892)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사회참여 활동이 낮은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결혼이민자·귀화자의 사회적 활동이 제한적이며, 지역사회 내 참여가 아직 충분히 활성화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한국어 능력 수준의 평균은 2.8541(SD=1.18136)로, 전체적으로 중간 이하의 능력 수준을 보였다. 최소값이 0, 최대값이 6.00임을 고려할 때 표본 내 한국어 능력의 편차가 비교적 크게 나타나며, 이는 개인별 언어학습 경험이나 교육 수준의 차이가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배우자 지지 수준의 평균은 3.0825(SD=1.52444)로 나타났으며, 전체적으로 중간 이상의 지지 수준을 보인다. 표준편차가 1.52로 비교적 큰 편이어서 배우자 지지 정도가 개인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부부 관계 만족도, 가정 내 상호작용, 결혼 경로 등 다양한 배경 요인이 영향을 미친 결과라 할 수 있다.

기술통계 결과는 변수 간 분포 특성이 상이하며, 특히 사회참여는 낮고 한국어 능력과 배우자 지지는 중간 수준 이상으로 분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차이는 본 연구가 실시하는 상관 및 조절효과 분석에서 변수 간 관계를 탐색하는 데 중요한 기초 정보를 제공한다.

4.2.2.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에서는 사회참여 수준, 한국어 능력 수준 그리고 배우자 지지 수준 간의 상호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3〉 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

변수	사회참여 수준	한국어 능력 수준	배우자 지지 수준
사회참여 수준	1		
한국어 능력 수준	0.126**	1	
배우자 지지 수준	0.140**	0.018*	1

$p^* < 0.05$, $p^{**} < 0.01$, $p^{***} < 0.001$

분석 결과, 사회참여 수준은 한국어 능력 수준($r=0.126$, $p<0.01$)과 배우자 지지 수준($r=0.140$, $p<0.01$) 모두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한국어 능력이 높을수록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증가하며, 배우자 지지가 높을수록 지역사회 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한국어 능력 수준과 배우자 지지 수준 간 상관계수는 $r=0.018$ ($p<0.05$)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관계를 보였지만 상관계수의 크기가 매우 작아 두 변수 간의 실질적인 관련성을 제한적인 수준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한국어 능력과 배우자 지지는 일정한 관련성을 보이지만 유의한 정적관계를 보이기는 하나 그 효과의 크기는 매우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두 변수가 서로 일정한 관계를 가지면서도 각각 독립적인 특성을 지니는 변수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한 본 연구와 같이 대규모 표본을 활용한 연구에서는 작은 상관계수라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결과를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상관이 낮게 나타난 이유는 첫째, 두 변수가 기반하는 개념적·구조적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한국어 능력은 개인의 학습 경험, 인지적 역량, 교육 수준 등 ‘개인적 능력 요인’에 의해 형성되는 반면, 배우자 지지는 정서적 상호작용, 부부관계의 질, 가정 내 역할 분담 등 ‘관계적·정서적 요인’에 의해 형성된다. 즉 한 변수는 개인의 사회적 적응 역량을, 다른 변수는 가정 내 관계 구조를 반영하므로 두 요인은 동일한 방향으로 동반 변화할 구조적 이유가 부족하다.

둘째, 한국어 능력이 향상되더라도 배우자의 태도·정서적 반응·관계 만족도가 자동적으로 변화할 연결 경로가 약하다. 언어능력이 사회적 영역에서 발휘되는 역량이라면, 배우자 지지는 사적 관계 영역에서 축적되는 정서적 자원인 만큼, 두 영역 간 직접적 영향이 제한적이다. 일부 가정에서는 한국어 능력 향상이 오히려 관계적 긴장을 초래할 가능성까지 제기되며, 이는 두 변수 간 상관이 매우 낮은 결과와 일관된다. 셋째, 본 연구가 활용한 대규모 표본의 특성상 $r=0.018$ 과 같은 미세한 상관도 $p<0.05$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날 수 있다. 다시 말해, 통계적 유의성보다 상관의 크기(r 값)에 초점을 맞춰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며, 본

연구에서는 두 변수가 실질적으로 독립된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중요한 학술적 의의를 갖는다. 우선, 한국어 능력과 배우자 지지가 사회참여에 각각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독립적 요인임을 확인함으로써, 다문화가정의 사회통합을 설명하는 데 있어 두 변수를 분리하여 접근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이는 기존의 “언어능력이 높아지면 가정 내 관계도 개선될 것”이라는 단순 가설을 비판적으로 재검토하게 만들며, 언어교육과 가족관계 지원정책을 별개의 영역으로 설계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또한, 두 변수 간 상관성이 거의 없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발견이다. 이는 다문화가족의 사회적 적응과 가정 내 지지체계가 서로 다른 구조와 요인에 의해 작동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며, 향후 연구에서 매개효과·조절효과·집단별 차이 등 보다 정교한 분석 모델을 탐색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결국, 본 연구는 한국어 능력·배우자 지지·사회참여가 다문화가정 내에서 어떻게 독자적으로 기능하는지를 실증적으로 규명함으로써, 다문화가정 지원정책과 학문적 이론 구성에 의미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4.2.3. 조절효과 분석

본 연구에서는 사회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파악하고, 한국어 능력 수준과 배우자 지지 수준 간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세 단계의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사회참여 수준을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사회인구학적 변수(모형 1), 한국어 능력과 배우자 지지(모형 2), 그리고 두 변수의 상호작용(모형 3)을 순차적으로 투입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모형의 회귀계수(B , β), 설명력(R^2), R^2 변화량(ΔR^2), F 통계량을 기준으로 결과를 해석하였다.

〈표 4〉 사회참여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변수		모형1		모형2		모형3	
		B	β	B	β	B	β
성별	여자	0.236	0.080	0.176	0.060	0.176	0.060
연령	30대	0.078	0.037	0.085	0.040	0.083	0.040
	40대	0.121	0.052	0.137	0.059	0.136	0.058
	50대	0.085	0.029	0.118	0.040	0.117	0.039
	60대이상	-0.088	-0.023	-0.025	-0.006	-0.026	-0.007
교육 수준	초졸	0.009	0.001	0.037	0.003	0.038	0.003
	중졸	-0.122	-0.011	-0.079	-0.007	-0.080	-0.007
	고졸	-0.166	-0.025	-0.129	-0.019	-0.128	-0.019
	대졸	0.056	0.012	0.019	0.004	0.018	0.004
	대졸이상	0.210	0.027	0.100	0.013	0.093	0.012
거주 기간	5년~10년미만	0.172	0.068	0.146	0.057	0.144	0.056
	10년~15년미만	0.303	0.133	0.268	0.118	0.266	0.117
	15년이상	0.367	0.175	0.339	0.161	0.337	0.161
거주 지역	농촌	0.223	0.105	0.219	0.102	0.219	0.103
동거 여부	동거	0.181	0.066	-0.219	-0.079	-0.220	-0.079
소득 수준	기준	0.083	0.041	0.048	0.023	0.047	0.023
	기준이상	0.147	0.036	0.111	0.027	0.110	0.027
한국어 능력 수준(독립)		-	-	0.085	0.097	0.083	0.096
배우자 지지 수준(조절)		-	-	0.134	0.198	0.133	0.198
상호작용항		-	-	-	-	0.011	0.018
Constant (상수항)		0.149		-0.085		-0.077	
R ²		0.045		0.070		0.071	
R ² 변화량 (ΔR^2)R ²		0.045		0.025		0.000	
F 통계량		43.288		61.743		58.944	
Durbin-Watson		-		-		1.953	

$p^* < 0.05$, $p^{**} < 0.01$, $p^{***} < 0.001$

※ 참조그룹: 성별(남성), 연령(30대미만), 교육 수준(초졸이하), 국적(외국, 대한민국), 거주 기간(5년미만), 거주 지역(도시), 동거 여부(비동거), 소득 수준(기준미만)

먼저 모형 1에서는 성별, 연령, 교육 수준, 거주 기간, 거주 지역, 동거 여부, 소득 수준 등 사회인구학적 변수를 통제하여 사회참여에 대한 기초모형을 검증한 결과, 모델 설명력은 $R^2=0.045$ 로 나타났다. 이 단계에서는 특히 거주 기간과 거주 지역이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었으며, 거주 기간이 길수록 사회참여 수준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또한, 농촌 거주자와 여성의 사회참여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으나, 연령과 교육 수준의 영향력은 제한적으로 나타났다.

모형 2에서는 독립변수인 한국어 능력 수준과 조절변수인 배우자 지지 수준을 추가하였다. 분석 결과 두 변수 모두 사회참여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며, 설명력은 $R^2=0.070(\Delta R^2=0.025)$ 으로 증가하였다. 한국어 능력은 개인의 언어적 역량이 높을수록 사회참여 빈도와 폭이 확대된다는 점을 보여주며, 배우자 지지는 본 연구에서 투입된 주요 변수 가운데 가장 큰 설명력을 나타내 사회참여를 강화하는 핵심적 요인임이 확인되었다. 이는 개인적 능력 요인과 관계적·정서적 요인이 각각 독립적으로 사회참여를 촉진한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모형 3에서는 한국어 능력과 배우자 지지의 상호작용을 추가하여 조절효과를 검증하였으나, 상호작용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설명력 역시 $R^2=0.071(\Delta R^2=0.000)$ 로 모형 2와 거의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즉, 배우자 지지가 한국어 능력과 사회참여의 관계를 강화하거나 약화시키는 조절적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어 능력과 배우자 지지가 동일한 차원에서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변수가 아니라,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별개의 요인임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준다.

따라서 사회참여는 거주 기간, 농촌 거주 여부, 한국어 능력, 배우자 지지 등의 영향을 받으며, 특히 배우자 지지는 가장 강력한 예측요인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어 능력과 배우자 지지 간의 상호작용은 유의하지 않아, 두 변수가 결합하여 사회참여를 추가적으로 변화시키는 구조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사회참여가 개인적 능력과 가족 내 정서적 지지가 각각 독립적으로 기여하는 방식으로 형성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결혼이민자와 귀화자의 사회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특히 한국어 능력과 배우자 지지의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21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어 능력과 배우자 지지는 모두 사회참여를 촉진하는 중요한 요소로 나타났다. 즉, 한국어 능력이 우수한 경우 지역사회 활동이나 공공기관 이용이 원활해지고, 배우자의 지지가 높은 경우 일상 생활에서 느끼는 안정감과 참여 의지가 강화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한국어 능력과 배우자 지지의 상호작용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배우자 지지가 한국어 능력의 효과를 강화하거나 약화시키는 조절효과는 확인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조절효과의 존재를 확인하기보다는 조절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을 실질적으로 검증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이러한 결과는 배우자 지지가 존재하더라도 한국어 능력이 사회참여가 특정 요인 간의 단순한 상호작용으로 설명되기보다는 다양한 개인적·사회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과정임을 시사한다. 특히 한국어 능력은 개인의 의사소통 역량과 관련된 개인적 자원인 반면, 배우자 지지는 가족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정서적·사회적 지원이라는 점에서 서로 다른 차원의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배우자 지지가 존재하더라도 한국어 능력이 사회참여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으며, 두 변수는 서로의 효과를 강화하기보다는 각각 독립적으로 사회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즉, 사회참여는 언어능력, 정서적 지지, 가족문화, 지역사회 분위기, 사회적 편견, 시간적 여유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몇 가지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한국어 능력과 배우자 지지가 모두 사회참여를 높이는 주요 요인임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둘째, 상호작용이 없다는 결과는 기존의 가정에 대한 새로운 해석 가능성을 제시하며, 사회참여를 보다 복합적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성을 보여준다. 셋째, 두 요인이 각각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미래 정책에서 두 요소를 함께 강화할 경우 사회참여가 현재보다 더 높아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결혼이민자와 귀화자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개인의 한국어 능력 향상뿐만 아니라 가족 내에서 형성되는 배우자의 지지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결혼이민자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은 한국어 교육 지원과 가족 차원의 지지 체계를 동시에 강화하는 방향에서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몇 가지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일상생활에 활용 가능한 실용적 한국어 교육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공공기관 이용, 지역행사 참여, 주민자치 활동 등 실제 상황을 기반으로 한 한국어 교육은 결혼이민자의 사회참여를 촉진하는 데 효과적이다. 최근 발표된 『2024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서도 결혼이민자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생활밀착형 한국어교육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특히 지역사회 활동과 공공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언어교육이 제공될 때 사회참여 기회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배우자가 사회참여 활동을 실제로 지원할 수 있도록 부부 및 가족 대상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배우자가 사회활동에 동행하거나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가사 및 돌봄을 분담하는 등 실질적인 행동적 지지가 이루어질 때 결혼이민자의 사회참여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수 있다. 셋째, 지역사회 내 다문화 인식을 제고하고 결혼이민자가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해외의 이민자 통합 정책에서도 지역사회 참여 프로그램과 커뮤니티 기반 활동을 통해 이주민의 사회참여를 촉진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예를 들어 지역 커뮤니티 활동, 시민참여 프로그램, 지역 멘토링 제도 등은 이주민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과 공동체 소속감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에서 지역사회 차원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며, 다양한 모임과 활동을 소개하고 초기 참여를 돕는 안내자나 멘토를 배치하는 등의 지원이 요구된다. 넷째, 돌봄 부담과 시간적 제약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 자녀

양육과 가사 부담은 결혼이민자의 사회활동 참여를 제한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이므로, 돌봄 지원 정책과 지역사회 지원 체계가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지원은 결혼이민자의 사회참여 장벽을 낮추는 중요한 기반 될 것이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한국어 능력과 배우자 지지가 조절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각각 독립적으로 결혼이민자와 귀화자의 사회참여를 촉진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향후 정책과 교육은 이 두 요소를 동시에 강화하는 동시에 사회참여를 제약하는 구조적 장벽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때, 결혼이민자·귀화자의 사회참여 확대가 사회통합을 촉진하는 기반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 김선숙 외(2020). 결혼이민자의 사회적응과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다문화가족 연구> 9(1), 23-44쪽.
- 김연수(2012). 여성결혼이민자의 삶의 만족에 관한 연구: 가족관계, 사회적 지지 및 문화적응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38, 229-256쪽.
- 김영순 외(2018). 다문화가족의 사회참여와 지역사회 통합 방안 연구, <다문화연구> 12(2), 45-68쪽.
- 김옥진(2014).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참여와 건강, <한국지역사회복지학> 48, 77-103쪽.
- 김용미(2025). 결혼이민자의 취업 현황과 활성화 방안 연구, <다문화사회와 교육연구> 19, 31-61쪽.
- 김희주(2018). 한부모 결혼이민자여성의 사회적 배제 경험에 대한 질적연구, <가족과 문화> 30(2), 129-170쪽.
- 민무숙·김이선·주유선·이정연(2013).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관계 양상을 통해 본 사회통합의 과제, <여성연구> 85(2), 5-43쪽.
- 박철민(2012). 개인적, 가족적, 사회적 특성이 결혼이민자의 사회통합에 미치는 영향 분석: 문화적 적응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16(3), 413-436쪽.
- 배경희·김석준(2012). 여성결혼이민자의 가구소득과 직업유무가 가족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회자본 조절효과 검증, <한국사회복지학> 64(3), 5-27쪽.

- 서정원(2018). 여성결혼이민자의 실태 분석에 관한 연구, 국내박사학위논문 한성대학교 대학원, 2018. 서울.
- 신민주 · 설동훈(2022). 여성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신뢰와 시민적 참여: 시민적 효능감과 차별 경험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담론201> 25(1), 113-145쪽.
- 양순미(2010). 농촌 결혼이주여성의 생활만족도에 사회참여활동 태도가 미치는 효과, <농촌사회> 20(1), 233-263쪽.
- _____(2014a). 다문화 청소년의 한국어 능력과 사회참여, <사회통합연구> 7(3), 15-32쪽.
- _____(2014b). 농촌 결혼이민여성들의 한국어 능력과 지역사회활동참여경험이 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영향, <농촌지도와 개발> 21(4), 1061-1091쪽.
- 여성가족부(2022). 『2021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 오봉설 · 최상연(2022). 여성 결혼이민자의 인적자본요인이 사회참여 유형에 미치는 영향, <인문사회 21> 13(6), 4019-4034쪽.
- 유전양 외(2021). 결혼이민자의 한국어 능력과 사회참여 관계 연구, <한국다문화학회지> 15(2), 45-67쪽.
- 이광모(2012). 지역복지공동체의 사회자본 형성에 관한 유교적 관점,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2.11 (2012), 659-681쪽.
- 이소영(2018).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자본이 공적제도에 미치는 영향, <다문화와 평화> 12(2), 23-50쪽.
- 유승희(2023). 결혼이주여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문화적 차이가 한국어 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다층분석, <한국사회복지학> 75(4), 209-226쪽.
- 이영균 · 이민자(2016).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자본과 생활만족도 관계, <한국공공관리학보> 30(3), 53-76쪽.
- 이은채 · 하진기(2020). 이주민의 사회자본에 관한 연구 -결혼이민자의 네트워크와 생활만족도의 관계에서 사회참여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다문화콘텐츠연구> 33, 103-130쪽.
- 이현정(2017). 배우자 지지가 결혼이민자의 사회참여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22(1), 99-120쪽.
- 임동진 · 박관태(2022).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활동참여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관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조직학회보> 18(4), 71-99쪽.
-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2). 결혼이민자의 배우자 지지와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 황민철(2016).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어 능력 영향 요인에 대한 연구, <다문화콘텐츠연구> 21, 43-81쪽.
- 황인옥(2016). 이주민의 사회적 자본과 사회통합, <국제이민연구> 12(1), 55-78쪽.
- Aiken, L. S., & West, S. G.(1991). Multiple regression: Testing and interpreting interactions. Sage Publications.

- Baron, R. M., & Kenny, D. A.(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 Baker, W.(1990). Market networks and corporate behavior.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6(3), 589-625.
- Bourdieu, P.(1986). "The forms of capital", 241-258, in *Handbook of Theory and Research of the Sociology of Education*, edited by Richardson, J. G., New York: Greenwood.
- Burt, R. S.(1992). *Structural holes: The social structure of competition*. Harvard University Press.
- Coleman, J. S.(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 S95-S120.
- Putnam, R. D.(1995). *Bowling Alone: America's Declining Social Capital*. *Journal of Democracy*, 6(1), 65-78.

필자 소개

성 명 조몬티타
소 속 군산대학교 다문화학과 박사과정 재학
주 소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성주산길4번길 6 스위트빌 A동 202호
전자우편 jmtt0421@naver.com

성 명 박시균
소 속 군산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다문화학과 교수
주 소 전라북도 군산시 대학로 558
전자우편 seegyoon@kunsan.ac.kr

Abstract

Analysis of the Moderating Effect of Spousal Suppor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n Language Proficiency and Social Participation among Marriage Migrants · Naturalized Citizens

Jo, Montita · Park, See-gyoon
(Kunsan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factors influencing the social participation of marriage migrants and naturalized citizens residing in Korea, and to examine whether an interaction between Korean language proficiency and spousal support produces a moderating effect. To this end, the study used raw data from the 2021 National Survey of Multicultural Families, jointly conducted by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and Statistics Korea, and analyzed a total of 15,534 marriage migrants and naturalized citizens. Using SPSS Statistics 25.0, descriptive statistics, correlation analysis,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were performed. The results showed that both Korean language proficiency and spousal support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social participation, whereas the interaction term of the two variables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his indicates that the two factors independently contribute to social participation and highlights the need for everyday Korean-centered education and family-support policies that actively encourage spousal involvement.

|Key words| Marriage migrants · Naturalized citizens, Korean language proficiency,
Social participation, Spousal support, Moderating effect

투고일 2026. 02. 06 / 심사일 2026. 03. 06 / 게재확정일 2026. 03. 10